



# 민수기 해석과 강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민 11-12)

강화구 박사(제일영도교회)

## 들어가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 백성으로 예배한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광야 행진을 준비하고 곧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생각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슴 설레는 순간들이었을 것이다. 민수기 1-10장은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정복을 향해 이동하는 백성들의 바쁜 순간들을 잘 그려 놓았다. 백성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다. 하지만 희망에 부푼 출발은 전혀 예상치 않게 불순종과 심판 이야기로 바뀌고 만다. 민수기 11-12장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바네아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담은 기록이기도 하고, 그 광야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불평과 반역을 반복함으로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하게 되는 과정을 묘사하기도 한다.

## 1. 민수기 11-12장의 구조

본 단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여정을 소개하는 데 전체는 세 개의 불평 내러티브로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단락을 이룬다. 특별히 광야에서 있었던 세 가지 형태의 불평 사건을 다루는데 이 사건들은 불평 내러티브이면서 동시에 광야에서 나타나는 지도력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다. 세 가지 형태의 불평 내러티브는 또한 특정한 장소를 배경으로 한다. 첫 번째 불평은 다베라에서(11:1-3), 두 번째는 기브롯 핫다아와(11:4-35),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세롯에서 일어난 일들이다(12:1-16).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불평(11:1-3)	두 번째 불평(11:4-35)	세 번째 불평(12:1-16)
장소	다베라	기브롯 핫다아와	하세롯
이유	일반적 불평	음식	지도력
범위	진영 끝	진영 (백성들)	진영 내부(지도자)

세 개의 불평 내러티브는 다음과 같은 패턴의 반복도 관찰된다. 특별히 다베라에서의 불평 사건은 가장 짧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완벽하게 전형적인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사사기 3장 7-11절에서 첫 번째 사사 웃니엘의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과 같다. 웃니엘 내러티브가 사사들 중에 가장 짧은 내용이지만, 가장 완벽한 구조와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모델과도 같이 역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베라에서의 불평 내러티브도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불평 내러티브의 전형적인 패턴을 제공한다. 세 개의 불평 내러티브는 다음과 같은 유사한 패턴을 가진다.

다베라	기브롯 핫다아와	하세롯
백성들의 불평(1a)	백성들의 불평(1-10)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 (1-2)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심(1b)	하나님의 진노(10b)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심 (3-10)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함(2a)		아론이 모세에게 간청함(11-12)
모세의 중보(2ba)	모세의 불평(11-15)	모세의 중보(13)
하나님의 응답(2bb)	하나님의 응답(16-24)	하나님의 응답(14)
	모세를 위한 공급(25-29)	
	백성들을 위한 공급(31-33)	
지명 소개(3)	지명소개(34)	
	여정의 연기(34)	여정의 연기(15)
	여정 소개(35)	여정 소개(16)

위의 표에서 명백하게 관찰되는 것은 다베라와 하세롯에서의 불평 내러티브는 매우 유사한 구조적 특징을 가진다는 점이고, 기브롯 핫다아와에서의 이야기는 유사한 패턴을 가지면서도 다른 구조적 특징을 가진다는 점이다. 밀그롬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특징이 있다고 주장한다!

백성의 불평(4-9)

모세의 불평(10-15)

하나님의 응답(16-23)

---

1. Jacob Milgrom, *Numbers*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0), 377-78.

## 모세의 불평에 대한 해결책(24-30)

## 백성의 불평에 대한 해결책(31-35)

위의 구조에 따르면, 나머지 두 내러티브에서 보이지 않는 요소가 두드러지는데, 첫째가 모세의 중보가 아니라 모세의 불평으로 이어진다는 점이고, 둘째가 구조적 특징에 있어서 중심을 차지하는 부분(16-24)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평을 매개로 해서 모세의 불평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응답하신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불평 내러티브는 백성들이 고기에 대한 탐욕을 가짐으로 촉발된 이야기를 모세의 리더십과 관련된 문제로 그 중심을 자연스럽게 옮기고 있다. 이는 세 번째 불평 내러티브에서 핵심적으로 제기될 모세의 리더십과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 있다.

## 2. 다베라에서의 불평(민 11:1-3)

다베라에서의 첫 번째 불평 내러티브는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되어 있다. 지명도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불평 내용도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다베라에서의 불평 내러티브는 앞뒤에 나오는 다른 내러티브와의 구체적인 연결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평학자들은 주장하기도 한다.<sup>2</sup> 하지만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다베라 불평 내러티브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불평 이야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불평과 리더십의 주제를 함께 공유하고 발전시키고 있기에 위의 주장

---

2. Rolf P. Knierim, *Numbers* (Forms of the Old Testament Literature) (Kindle Locations 2983-2984).

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베라의 위치는 정확하지 않다. 민수기 33장 16-17절에서는 광야 여정을 시내광야에서 기브롯 핫다아와와 하세롯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베라라는 지명 자체가 있었는지조차도 논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카일의 경우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아와는 동일 지명이라고 주장한다.<sup>3</sup> 하지만 신명기 9장 22절에서 모세가 명백하게 다베라를 기브롯 핫다아와를 다른 장소로 표현하고 있기에 다른 장소로 간주하되,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기브롯 핫다아와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어떤 장소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sup>4</sup>

백성들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로 불평했고, 이것은 여호와와 눈에 보시기에 악하였다. 불평했다로 해석되는 동사는 분사형인데다 특이하게 전치사 카프(*kaph*)가 포함되어 있다(커미트오너님, כִּי־אֵלֶּיךָ). 동사 아난(*ann*)의 히트포엘 분사형인데 주동사의 기능을 하는 셈이다. 기본적으로 분사형은 반복적 혹은 연속적 행동을 강조하는 방식이다.<sup>5</sup> 같은 맥락에서 전치사 카프도 해석할 수 있다. 여기 나타나는 카프는 단언의 카프로서 “정말로”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6</sup> 이런 점에서 동사를 지속성을 나타내는 분사형으로 사용하면서 부사적 용례를 가진 카프를 추가함으로 다베라에서 백성들이 보인 불평이 대단히 능동적이고, 심각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본문에

---

3. C. F. Keil and F. Delitzs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1* (Peabody: Hendrickson, 1996), 694. 카일은 다베라가 진영의 끝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쳤던 그곳의 끝자락에서 있었던 일이라 주장한다.

4. Gordon J. Wenham, *Numbers* (The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Downers Groves: Inter-Varsity Press, 1981), 106.

5. 로날드 J. 윌리엄스, 『윌리엄스 히브리어 구문론』 김영욱 역 (서울: 그리스, 2012), §213.

6. 윌리엄스, §261. 윌리엄스는 이를 “진리의 카프(*kaph veriatis*)”라고 부른다. 또한 Milgrom, *Numbers*, 308을 보라. 한편 Baruch A. Levine은 이를 시간절로 이해한다. *Numbers 1-2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320을 보라. KJV는 이를 기초로 1절을 “And when the people complained, it displeased the LORD”라고 번역했다.

서 강조된 백성들의 불평은 바로 앞의 문맥과 비교할 때 더 두드러진다. 시내 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주 희망찬 여행을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셨다(10:29, 32). 이를 강조하기 위해 본문은 히브리어 토브(tob)를 다섯 차례 사용했다. 그에 따라 33-36절은 삼일 길을 떠나 여호와와 언약궤가 인도하였음을 말쑤한다. 35절 구문의 시작은 *wayēhî*로서 11장 1절과 동일한 구문이다. 이로써 백성들의 악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대하심에 대한 불신앙적 불평이 되고, 본문은 이를 아주 강한 어조로 전달한다.<sup>7</sup>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역시 즉각적이다. 하나님은 들으셨고, 진노하셨고, 여호와와 불을 보내셨다.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광야 불평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전개다. 출애굽기는 광야에서의 불평 이야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공급과 응답하심으로 나타났다면, 민수기에서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로 전개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와 불을 보내셔서 백성들의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여기 등장하는 여호와와 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상징이든, 심판의 상징이든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사용된다(출 3:2; 19:18; 레 9:24; 10:2). 여호와와 불은 진영 끝에 임했는데, 진영 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정결의 영역인 진영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 지점을 뜻한다. 첫 번째 불평 내러티브에서 하나님의

---

7. 데니스 R. 콜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관찰했다. Dennis R. Cole, *Numbers* (NAC 38B;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77, 180.

A 여호와께서 선한 일들(good)을 약속하셨다(32)

B 여호와와 언약궤가 앞서 가심(wayehi; 35)

C 주여 일어나소서(35b)

C' 주여 일어나소서(35c)

B' 백성들이 불평함(wayehi; 11:1)

A'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함(evil; 11:1)

심판은 백성들 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영 끝에 걸쳐 있는 데 이후 내러티브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영 안쪽으로 점점 더 그 중심을 이동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와 불이 진영 끝을 불사른 것은 어떤 의미일까? 진영의 경계지점에 있는 텐트나 물체들을 불태웠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진영 끝에 있던 백성들을 불살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 레위기 10장 2절에서 여호와와 불이 나타났을 때는 심판받을 대상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랐기 때문이다.<sup>8</sup>

즉각적으로 나타난 여호와와 심판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모세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곧 하나님께 중보했고, 그 결과 하나님은 내리신 재앙을 그치게 하신다. 모세는 이 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다. 다베라는 ‘불태움’을 뜻하는 데, 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불사르셨음을 기억나게 하는 이름이다.

### 3. 기브롯 핫다아와에서의 불평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일어난 사건은 출애굽기 16장에 나타난 만나 사건과 18장에 있는 모세의 리더십과 관련된 사건들과 어느 정도 닮았다. 하지만 그 차이점들도 명백한데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도구(출16:12)로 드러난 반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의 만나 이야기는 보다 직접적으로 모세의 리더십과 더 긴밀하게 연결된다.

---

8. 왕대일, 『민수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288. 왕대일은 진 끝을 불살랐다는 말에서 사람에게 대한 심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다.

### 3.1. 백성의 불평(4-9)

다베라에서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속하게 잊혀졌다. 게다가 불행하게도 기브룻 핫다아와에서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더 광범위하고 심각해져 있다.

이번에 불평을 주도한 사람들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다.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아사프수프, אֲשַׁפְּטִים)는 구약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사용되는 단어(hapax legomenon)인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출애굽 할 당시 함께 출애굽했거나 이스라엘 무리에 섞인 여러 족속들을 통칭하는 단어다. 물론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 언급된 ‘수많은 잡족’과 이들이 동일한 그룹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적어도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는 말에는 인종적으로 섞여 사는 사람들이기도 하며, 그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로 볼 수 있다.

그들이 먼저 탐욕을 품자, 그 마음은 즉각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다시’ 울며 하나님께 불평하게 만들었다. 비록 앞선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문맥상 다시 울었다는 표현은 다베라에서의 불평을 전제하고 다시 불평했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sup>9</sup> 그들의 불평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는 말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출애굽기의 병행 구절에서 표현된 것과는 약간 다른 무게를 가진다. 출애굽기에서는 소위 ‘누가’라는 관점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누렸던 것들에 대한 묘사에 집중한 반면, 민수기는 ‘누가’라는 의문사를 추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와 모세의 리더십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의 불평은 현실의 어려움과 애굽에 있었을 때의 과거를 대비하는 방

---

9. Timothy R. Ashley, *The Book of Numbers*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3), 208.



식으로 이뤄진다. 그들은 애굽에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기억들을 떠올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을 값없이 먹었다고 회상한다. 비록 음식의 목록들 자체가 과장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을 지라도 그것들을 값없이 먹었다는 데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sup>10</sup> 적어도 애굽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던 애굽의 식물들은 자신들의 힘겨운 노예 생활의 결과물이었다. 그러니 일정 부분은 백성들이 현재의 광야 생활과 만나의 단조로움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기 위해 과거를 더 아름답게 포장한 셈이다. 하지만 그들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과 구원을 망각하고 있다. 그들이 어떻게 기억하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은 대단히 고달팠고, 그 고통의 중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었다(출 2:23-25). 아무튼 그들의 불평은 누가 자신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는가? 라는데 있었다. 비록 레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고기가 없다는 말은 어폐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기를 먹는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절기 때나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sup>1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짐승을 잡아 고기에 대한 마음을 해소하려 하지 않았다. 방점은 고기가 없음이 아니라, 아마도 ‘값없이’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sup>12</sup>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공짜 만나를 먹는 것과 같이, 자기들의 짐승을 잡지 않고 값없이 고기를 먹기를 원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만나에 대한 불평으로 옮겨 간다. 처음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렸을 때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했는지 상상이 되는데, 이

10. 고대 근동의 문헌에 나타나는 식물들에 대한 간단한 언급은 다음을 참조하라. 신득일, 『광야의 반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83. fn. 14.

11. Levine, *Numbers 1-20*, 321. 또한 Levine은 백성들의 불평이 고기인 반면 그들의 추억은 고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12. Milgrom, *Numbers*, 84.

제 일상이 되어 내리는 만나는 더이상 감사의 제목이 되지 못하였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말하는 데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는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sup>13</sup>

백성들의 불평에 더해서 본문은 만나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만남은 짚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았다(11:7).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만남을 채집하고 그것으로 여러 모양으로 식사 준비를 할 수 있었음을 알려 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에 대한 불평 이야기 바로 다음에 이렇게 내레이터의 목소리로 만남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음식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광야 생활에 얼마나 유익한지를 설명하는 것은 적어도 내레이터는 이 설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불평이 옳지 않음을 내비치는 것이다.

### 3.2. 모세의 불평(10-15)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자연스럽게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다르게 전개된다. 백성들이 각각 장막 문에 서서 우는 소리를 들었고, 이 때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을 향하여 크게 진노하셨다(10). 모세 역시 백성들의 눈물이 악하였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을 꾸짖거나 하나님을 향해 백성들을 중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어쩌면 반복적으로 불평하는 백성들이 년덜머리가 낳을 수도 있겠다. 혹은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는 말속에 은근히 자신의 지도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부분들로 인해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겠다. 모세의 불평 속에 백성들과의 거리감이 현저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

13. 출 32:1에서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동안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범죈하게 되는데, 이 때 그들이 아론에게 한 말이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모세에 대한 불만과 거리감이 느껴지는 표현이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민 11:12)

15절에 따르면 모세의 불평 어린 마음은 더 극대화된다. 급기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주시길 간구한다. 모세의 불평은 백성들의 음식과 관련된 불평에서 시작해서 자신의 지도력의 문제로 명확히 옮겨간다. 백성들에게 자신은 고기를 공급할 수 없음을 인정함으로 더 이상 자신은 백성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다(14). 모세가 자신의 지도력 한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의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14절의 “나 혼자”라는 표현은 이 중으로 강조된 형태다. 이제 하나님은 음식을 두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응답과 함께 자신의 지도력의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도 응답하셔야 한다.

### 3.3. 하나님의 응답(16-23)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어진다. 두 가지 형태의 불평 즉 백성들이 고기 문제로 불평한 일과 모세가 지도력의 문제로 불평한 일에 응답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의 불평에 대해 즉각적인 해결책을 주시는데, 모세로 하여금 칠십 인의 장로를 모아서 회막으로 나아오도록 하신 것이다. 모두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모세가 뽑아서 데려온 이들이다. 출애굽기 24장에서도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고 언약의 식탁 공동체에 초대 받은 칠십 장로가 있었는데 이들과 동일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각각 뽑은 자들이 아니라, 모세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서 뽑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실제 칠십 명의 장로들이었을 것이다. 밀그룹이 주장하듯 이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로서 대

략적인 숫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한 지파를 기준으로 6명씩을 뽑았고, 칠십 인을 맞추기 위해 두 사람이 회막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장막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징적인 가치도 존재하겠지만, 실제 장로들의 숫자라고 보아야 마땅하다.<sup>14</sup>

하나님은 칠십 장로들이 모세를 도와서 그의 짐을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셔서 모세의 짐을 가볍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영을 장로들에게도 나누어준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ESV 성경은 17절을 “I will take some of the Spirit that is on you”라고 번역한다. 그렇다고 이 표현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영의 일부분만 떼어서 주며, 모세보다는 좀 더 낮은 단계의 예언을 하게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임한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장로들에게도 임하는 것이다. 즉, 장로들에게 영이 전달되었다고 해서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약화되거나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sup>15</sup> 이로써 모세는 홀로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 모세의 불평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으로 관심을 돌리신다.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며 고기를 먹고 싶어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었다(출 16:3, 11-13). 본문에서도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의 권

14. Milgrom, *Numbers*, 86.

15. 문맥적으로는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나누시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과도한 짐도 나누는 데 서로 연결점이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신득일, 『광야의 반란』, 26-27; 왕대일, 『민수기』, 299; Milgrom, *Numbers*, 87 등을 보라.

능의 역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자신의 몸을 거룩히 해야 했다(18). 출애굽기와는 전혀 다른 접근이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은혜로 메추라기를 베푸셨는데, 민수기 본문에서 자신의 몸을 성결케 하라는 데는 어쩌면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진노의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실제로 메추라기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은 다음에도 잘 나타난다.

하루나 이틀이나 닻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19-20)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평의 실체가 단순히 고기를 먹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불러내어 위대한 구원을 베푸신 것에 대한 회의였고, 그것은 명백히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신다(20절). ‘멸시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아스(**מָאָס**)로서 ‘멸시하다’는 뜻보다는 ‘거절하다’로 해석할 수 있다.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었다. 이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시되 한 달 동안 냄새도 싫어할 정도가 될 정도로 고기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코에서 그것이 넘쳐 나오기까지다. 냄새조차 싫어질 만큼 질리게 하신다는 뜻이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백성의 보행자

가 육십만 명이나 되니 어찌면 당연한 이야기다.<sup>16</sup> 집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 잡아도 한 달 동안 그들에게 고기를 공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손이 짧으나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옹하는 여부를 보리라”고 말씀하신다. 여호와와 손은 신인동형론적 표현으로 그의 능하신 구원의 능력이거나 심판의 능력을 의미한다(출 9:15; 수 4:24; 사 2:15; 룻 1:13). 그런데 그 손이 짧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느냐? 라고 반문하신 것이다. 전체적인 맥락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신 것이다. 책망과 함께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확증하시는 데 이는 백성들을 먹이는 문제와 지도력에 대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실 것임을 암시한다.<sup>17</sup> 다음 단락에서 먼저 지도력과 관련해서 장로들을 세우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둘째로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

16. 모세가 어떤 방식으로 60만 명을 생각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출 12:37과 민 1:46 등에 언급된 숫자에 대한 어림수로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군사의 숫자가 실질적으로 60만 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실제 군사만 60만 명이 넘으면 대략 전체 인구수는 200만 명 전후가 될 것인데, 고대 사회에서 이 정도 인구는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신 7:7, 17 등은 가나안 백성들보다 인구가 더 적다고 언급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이스라엘의 인구는 훨씬 적었을 수 있다(출 23:29 참조). 만일 정말 전체 인구가 200만 명이나 되었다면 군이 애굽을 탈출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Ashley, *Numbers*, 60-66; Cole, *Numbers*, 78-82; Wenham, *Numbers*, 60-66, 그리고 D. M. Fouts, “Numbers, Large Numbers,” in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Historical Books*, eds. B. T. Arnold & H. G. M. Williamson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5), 750-54를 보라. 다양한 주장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다. Roland K. Harriso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Peabody: Prince Press, 1969), 631-33. 헤리슨의 경우 아마도 고대인들에게는 잘 알려진 방식이지만 현대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술되었을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또한 학자들은 대체로 당시 가나안 땅의 인구가 6만에서 20만 사이였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17. Ashley, *Numbers*, 213.

### 3.4. 모세의 불평에 대한 해결책(24-30)

모세는 장로 칠십 인을 모으라는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사람들을 선발하여 장막에 둘러 세웠다. 이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하셨다. 본문은 명백하게 16-17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데, 모세와 비교할 때 그 한계도 분명하다. 하나님의 영은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을 칠십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면 예언을 했을 뿐 그것은 단회적인 현상일 뿐이었다(25절).<sup>18</sup> 본문은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주었다고 입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에게 임한 영이 줄어들었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모세와 칠십 장로들의 지도력에 차등이 있음을 암시할 뿐이다. 또한 그들의 예언은 어떤 성격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여러 학자들은 이것이 사울의 경험했던 황홀경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본문이 이를 암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무시해선 안 된다.<sup>19</sup> 그들이 어떤 식으로 예언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임한 경우와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리고 예언의 기능은 그들이 예언한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함으로, 그들이 모세의 지도력을 일정 부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확증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그 예언의 성격이 어떠

18. 단회적으로 그쳤다고 표현되어 있으나, 몇몇 사본은 다른 독법을 가지고 있다. MT는 “로 아세프” 즉 다시 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탈군 웅겔로스, 요나단 등은 “아수푸”로 읽어서 “그치지 않았다”는 정반대 의미로 해석했다. Milgrom, *Numbers*, 89와 fn. 60-62를 보라. 또한 신득일, 『광야의 반란』, 94. fn. 33에서 그 평가를 참조하라.

19. Levine, *Numbers*, 325. 레빈은 명시적으로 예언하다는 동사의 히트파엘형은 사울의 경우와 같은 황홀경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prophesy ecstatically”). 같은 맥락에서 Keil and Delitzs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1, 698; Migrom, *Numbers*, 89.

했는지를 논의하는 것은 본문 이해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문맥 안에서의 문학적인 기능에 주목할 때, 그들의 예언은 모세에게 임한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16-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24-25절이 성취한 것이라면, 26-29절은 좀 더 진일보한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여호와와 영은 모세와 함께 있던 칠십 장로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처소에 머물러 있던 엘닷과 메닷에게도 임하였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엘닷과 메닷의 정체에 대해서도 성경이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칠십 장로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다른 장로들이 성막으로 나아갈 때 특정되지 않은 이유로 진영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인가?<sup>20</sup> 아니면 칠십 장로들과는 별개로 전혀 예상치 않았던 두 사람인가? 아니면 칠십 장로들과 같이 예언을 함에 있어서 인정될 만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나?<sup>21</sup> 본문 24절에서 모세가 칠십 장로들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웠고, 25절에서는 그 칠십 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한 소년이 소식을 가져오기까지 모세는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했던 칠십 장로와는 다른, 그러나 ‘기명된 자’에 속하는 인물이 엘닷과 메닷일 수 있다.<sup>22</sup> 만일 모세가 12지파에서 각각 6명의 지도자를 뽑았다고 한다면 총 칠십 이 명이 되었을 것인데 그들 중에 두 사람은 진영에 남아 있고, 칠십 명이 모세와 함께 갔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능하다.<sup>23</sup>

진영에 있던 한 소년이 엘닷과 메닷의 예언을 보고 모세에게 달려와서 소

20. Levine, *Numbers*, 325; 신득일, 『광야의 반란』, 95.

21. Migrom, *Numbers*, 90; John D. Currid, *Study Commentary on Numbers* (Evangelical Press, 2009), 167.

22. 기명되었다는 말은 이름의 목록이 있다는 뜻인데, 두 사람을 포함해서 다른 장로들의 이름도 아마 작성되었을 것이지만, 성경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명단이 소개되지는 않는다.

23. Migrom, *Numbers*, 90, 308-309. 밀그롬은 랍비들의 전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한다.



식을 전했다. 이 때 여호수아는 엘닷과 메닷이 더 이상 예언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모세에게 간언했다. 아마도 두 사람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공간에서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지도력에 흠집이 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세는 뜻밖에도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sup>24</sup>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29절)고 대답했다. 이제 모세와 칠십 장로들은 함께 진영으로 돌아옴으로 단락이 마무리 된다.<sup>25</sup>

### 3.5. 백성의 불평에 대한 해결책(31-35)

모세가 제기했던 리더십 부담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영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방향을 돌려 백성들이 제기했던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준비하셔서 고기를 요구했던 백성들에게 고기를 넘치도록 공급하신다. 하나님의 바람은 두 가지 측면을 모두가진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의 바람은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는 구원의 바람이지만, 15장에서는 뒤를 쫓는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는 심판의 바람이었다. 바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메추라기를 몰아 그 땅에 내

24. ‘시기’한다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히브리어 표현(קִנְיָה)은 열심, 열정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25. 모세가 진영 밖으로 나가서 장로들을 회막 주위에 세웠고, 그들이 모든 일을 마치고 진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회막이 진영의 한 가운데 있지 않고 진영 밖에 설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학자들은 성막과 회막을 구분하면서 두 개의 성소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하나만 존재했고, 성막을 옮긴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출 33:7-11에 나타나는 진영 밖 회막 이야기는 연대기적인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내포한다. 이에 대해 Cole은 백성들이 있는 진영으로부터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진영을 떠나 한 가운데 있는 회막 주위로 나아옴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R. Dennis Cole, *Numbers* (NAC3B;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 2000), 191. 두 개의 성막설과 단일 성막설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철현, 『출애굽기 산책』 (서울: 솔로몬, 2014), 365-94를 참조하라. 그는 연대기적 문제를 서사 비평에서 사용하는 물시 간적 읽기 방식을 통해 극복하려 한다.

리게 했다.<sup>26</sup>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도력 부담을 들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히, 루아흐)을 내리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바람(히, 루아흐)을 내리신다(31절).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것은 엄청난 이적이지만, 하나님은 당시 계절적으로 일어나는 메추라기의 이동이라는 자연 현상을 이용하셨다. 원래 메추라기는 주로 봄에는 남쪽 아라비아 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고, 가을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한다. 본문에서는 남쪽 바다 즉 아카바 만에서부터 바람을 일으키셔서 메추라기를 위로 보내신 것이다. 메추라기는 지면으로부터 약 2규빗 정도 높이 되도록 날았고, 백성들은 큰 무리 없이 원하는 만큼 메추라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7</sup>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메추라기가 진영 곁 이쪽저쪽 즉 진영 주위에 내렸다는 사실이다(31절). 만나는 진영 안에 내렸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9절). 아마도 메추라기가 진영 주위에 내림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됨을 암시하는 듯하다.<sup>28</sup>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메추라기를 보고 과도한 탐욕을 보인다. 그들은 이를 동안 무려 10호멜이나 되는 많은 양의 메추라기를 잡아서 넣어 두었다. 호멜은 가장 높은 부피 단위로서 약 220리터 정도 되니, 10호멜은 약 2,200리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보통 고기를 잡아서 넣어 둔다는 말은 여행에 알맞게 말린다는 뜻이다. 대개 소금 등을 사용해서 오늘날의 육

26.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78:26-31을 참조하라.

27. 메추라기가 2규빗 높이로 날았는지, 아니면 그 정도까지 쌓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데니스 올슨은 메추라기로 인해 엉덩이까지 파묻힐 지경이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붓드는 약 90센티미터 높이로 날아다녔을 것으로 본다. 본문 32절에서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잡아 진영의 여러 곳에 펼쳐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로 볼 때 새들이 바닥에서부터 쌓였다고보다는 바람의 영향으로 낮게 날았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다. 데니스 올슨, 『민수기』, 차종순 역 (현대성서주석;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2000), 116; 피립 J. 붓드, 『민수기』 (서울: 솔로몬, 2004), 235.

28. Milgrom, *Numbers*, 92; Cole, *Numbers*, 197.

포처럼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31-32절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나타냈다면, 이제 33-34절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룬다. 무엇보다도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도한 탐욕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탐욕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 밤잠을 설치가며 과도하게 탐욕을 부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고기가 그들의 잇 사이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고기를 잡아서 널어 두었고, 그것들이 온전히 마르기도 전에 입 안 가득 고기를 넣고 게걸스럽게 씹어 먹는 이미지다.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진노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백성이 누구지 명확하지 않다. 대체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기 보다는 앞에서 언급되었던 백성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본문도 among the people로 읽음). 4절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에 대해 언급하고 그들이 탐욕을 부린 사건을 먼저 지적했기 때문에 본문 33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 대상으로서의 그 백성은 언약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살던 ‘어중이떠중이’들을 뜻할 가능성이 높다. 메추라기로 인해 큰 재앙이 임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즉 탐욕의 무덤이라고 지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은 이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이름을 지어줌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거절했던 시절을 떠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제 마지막 3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요약적으로 소개함으로 하나의 큰 단락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스라엘은 불행한 땅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떠나 곧 하세롯에 이른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가 전개될 장소를 소개함으로 뒤따르는 단락을 준비하는 기능도 한다.

## 4. 하세롯에서의 불평(민 12:1-16)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평은 진영 끝에서부터 시작되어 세 번째 불평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운데까지 도달한다. 또한 불평은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탐욕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도력의 문제로 점점 더 깊이 들어온다. 기브롯 핫다아와에서의 불평 이야기는 메추라기로 시작해서 모세의 지도력 문제로 발전했다면, 이제 하세롯에서의 세 번째 불평 이야기는 온전히 모세의 지도력에만 집중한다. 몇몇 사람들의 불평에서 더 나아가서 모세의 가족이기도 하며, 모세와 함께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 커진다. 모세 지도력의 권위 문제가 중심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전개된다.

### 4.1.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1-2)

세 번째 불평은 미리암과 아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미리암이 앞에 나와 있고 또 미리암이 벌을 받는 것은 이 불평 즉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반기를 든 것이 미리암이 주도한 것임을 뜻한다. 어순도 ‘미리암과 아론’이지만, 첫 번째 동사가 3인칭 여성 미완료 형태다. 등장하는 지도자들이 모두 한 가족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가족간의 이슈가 아니다. 아론은 이미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았고, 미리암 역시 출애굽 역사를 통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출 15:20-21). 미리암 역시 ‘선지자’라 불렸다. 그러니 두 사람의 불평은 단순한 시기나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 서 있었던 모세의 권위에 대한 매우 중대한 도전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제기한 문제는 모세의 선지자적 지도력의 문제가 아니라, 모세의 도덕적 흠결을 찾으려는데 있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1절). 모세는 미디안에 있을 때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했고 이미 두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출애굽을 위해 이집트로 돌아올 때 십보라는 아이들을 데리고 장인의 집으로 되돌아 갔고, 출애굽 이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 시점은 민수기 12장의 시간보다 약 1년 정도만 지났던 시점이다. 그렇다면 구스 여자는 누구였을까? 구스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해서 결론짓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스는 아프리카 애굽 남쪽에 있는 누비아(현재의 이디오피아)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모세는 자신의 아내 십보라가 함께 있는데, 구스 여인을 따로 첩으로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29</sup> 어떤 사람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신할 구스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는 구스라는 곳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이디오피아 지역이 아니라, 미디안 지역을 다르게 부르는 것이라 주장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구스 여자는 십보라였을 것이라 주장한다. 이제 번째 주장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30</sup> 전통적으로 구스가 이디오피아 지역을 일컫기는 하지만, 성경 여러 곳에서 구스가 아닌 다른 지역을 일컫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이다. 구스(Cush)는 구산(Cushan)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하박국 3장7절은 시적 평행법을 따라 구산과 미디안이 동일시된다.

---

29. LXX는 구스를 아예 이디오피아라고 번역한다. Currid, *Numbers*, 174-75를 보라. 그에 따르면 구스 여자는 모세의 지도력 아래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 나왔던 여러 족속들 중에 속했을 것이다. 하지만 미리암과 아론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박해하던 나라의 백성과 결혼했다는 사실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30. Ashley, *Numbers*, 223.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sup>31</sup>

하지만 만일 십보라와의 결혼은 오래전 일인데(출 2:21), 이제 와서야 그것이 문제되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이 때문에 모세가 십보라와 최근 이혼하고 새로 결혼을 했거나,<sup>32</sup> 사별후 재혼을 했거나,<sup>33</sup> 첩을 들였다고 보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 하지만, 미리암과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십보라는 새로운 얼굴이었다. 출애굽 한 이후 광야에 나와서야 처음 미디안 출신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만났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미리암의 문제 제기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인데 단순히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구스 여자가 십보라라고 할지라도 그녀 역시 미디안 사람으로 이방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이방인들과의 구별을 강조하는 선민의식이 구약 포로기 이후에 있었던 분위기와는 상당히 달랐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스 여자가 정확히 누구였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빌미로 미리암과 아론이 제기하고 싶었던 진짜 문제는 바로 다음에 나오기 때문이다.

미리암은 곧장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고 반문한다.<sup>34</sup> 모세의

---

31. 구산은 미디안 땅과 관련되는데 이는 샷 3장에 등장하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도 연결된다. 그곳에서도 구산은 미디안 혹은 에돔 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2. 이럴 경우 미리암과 아론은 십보라를 대변하는 셈이 된다.

33. 왕대일, 『민수기』, 301.

34. 표현 자체는 강조된 형태다. 히브리어로 “하라크-아크”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오직’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한 셈이다. 이와 함께 바로 앞에서 나온 전치사 ki를 직접 인용문 표시로 이해하면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사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다. Milgrom, *Numbers*, 93-94.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권리를 형제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다. 어쩌면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지도력에 순종해야 하는 그 상황이 싫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셨느냐!’ 고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모세의 독특한 지위를 부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모세를 향한 도전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 4.2.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하심(3-10)

모세는 침묵했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제 내레이터의 목소리로 모세에 대한 평가가 제시되는데, 모세는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학자들은 3절의 이 표현을 모세가 직접 썼다는 사실에 오랫동안 비평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적어도 본문에서 모세가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볼 때 그는 분명 온유한 사람이 맞다. 본문에서 ‘이 사람 모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출애굽기 11장 3절에서도 사용된다. 애굽에 행한 이적들로 말미암아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보았는데 이때 사용한 말이 ‘그 사람 모세’인데, 민수기 본문에서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는 뜻에서 이 표현을 다시 사용한 것이다. 출애굽기 본문이 모세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시선이었던 것처럼, 본문에서 말하는 모세의 온유함은 모세 자신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평가라고 볼 수 있다(두 본문 모두 내레이터의 목소리로 전달된다).<sup>35</sup>

이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셨다. 갑자기 부르심은 두 사람의 문제제기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함이다. 세 사람을 ‘회막으로 나아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이 표현도 당시 회막이 진영 밖에 있었음을 암시

---

35. Milgrom, *Numbers*, 94.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명확하지 않다.<sup>36</sup>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는 순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 아론, 그리고 미리암의 순서로 부르셨다. 1절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지도력을 정확히 인정하심을 그 순서를 통해 명확히 하신다.<sup>37</sup>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세 사람을 나아오라고 하셨을 때, 미리암과 아론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재판정에 그들을 부르고 계시지만, 어쩌면 이들은 이전의 예들을 통해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도력의 부분을 자신들에게도 나눠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을지도 모르겠다.

본문 6절에서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이라고 번역한다. 히브리어는 ‘만일 여호와가 너희 선지자라면’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안이 있어왔다. 히브리어 네비아켄(너희의 선지자)에 간단하게 자음 b를 첨가해서 네비바켄(너희 가운데 있는 한 선지자)로 읽기를 제안한다.<sup>38</sup> 하나님은 모세를 ‘내 중’이라 지칭하시면서 모세의 특별함을 강조하신다. 특히 6-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과의 다른 점들을 말씀하신다. 다른 선지자들과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 알리거나 말하지만, 모세는 충성되어서 그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고 하신다(출33:17-23). 모세는 가장 특별하고 독특하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아론과 미리암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꿈이나 환상을 통해 보고 듣기도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8절에서 ‘너희가 어쩌하여 내 중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고 책망하심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 최종적인 답을 주신다. 이는 미리암이 2절에서 던졌던 질문(‘여호와께서 모세와만

36. 왕대일, 『민수기』, 312; Levine, *Numbers*, 329.

37. Currid, *Numbers*, 176.

38. 붓드, 『민수기』, 240. 다양한 번역에 대해서는 Levine, *Numbers*, 329를 보라.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답하신 것이다. 미리암과 아론은 틀렸고,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그들의 잘못은 명백하게 폭로되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그들에게서 떠나셨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은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이제 심판만이 남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서 떠나심과 동시에 미리암의 몸에 피부병이 돌았고, 그녀의 몸은 눈과 같이 희게 되었다. 미리암에게 동조했던 아론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10절에서 나병이라고 번역했으나, 나병은 고대 사회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부병이라고 보는 것이 적당하다.<sup>39</sup> 이점은 레위기 13장의 나병에 대한 규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 4.3. 아론의 간청(11-12)

이를 곁에서 지켜본 아론의 충격도 컸다. 아론은 먼저 모세에게 말함으로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 사이의 지도력 논쟁은 완전히 일단락되고 만다. 아론은 모세처럼 혹은 모세가 가진 지도력을 나눠가지를 원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아론은 모세를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 우리에게 그 벌을 내리지 않도록 요청한다(11절). 가장 먼저는 미리암에게 임한 심판이 자신에게도 임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이다. 두 번째는 ‘미리암의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요청한다(12절).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나병을 판

---

39. 우리에게 알려진 나병은 주전 1천년기 후반까지 어떤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그 이전에 성경에서 언급된 나병에 대한 기록은 대체로 음, 백반, 흑반 등과 같은 악성 피부병에 해당된다.

별하는 역할을 하였기에 미리암의 나병을 보았을 때 그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더 정확히 이해했을 것이다(레 13:2-17). 적어도 그가 보기에는 미리암이 겪는 나병의 심각성으로 인해 그녀가 죽을 수도 있다고 느꼈던 것 같다. 왜 아론은 동일한 형벌에 처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본문이 정확히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시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하지만, 1절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반기를 든 일은 확실히 미리암이 주도했고 아론은 동참했을 뿐이었다.

#### 4.4. 모세의 중보와 하나님의 응답(13-14)

아론의 중보 요청을 들은 모세는 즉각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미리암의 심판에 대해 아론은 모세에게 요청했고, 모세는 여호와께 요청했다. 그는 중보자로서 단순하지만 확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쳐달라는 모세의 기도에도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고, 미리암으로 하여금 칠 일간 수치 가운데 있도록 하심으로 미리암의 죄악의 심각성을 나타내셨다. 이제 미리암은 즉각 진 밖으로 내쳐져서 갇혀 지내게 되었다. 칠 일만에 회복되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율법의 명령과 조금 다르다. 율법은 나병으로부터 회복되어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최소 14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레 13:5). 먼저는 진단을 받고 칠 일을 기다려서 진단을 받고, 나머지 칠일 동안은 정결례를 치러야 했다. 하지만, 미리암은 단지 칠 일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미리암에 특별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신 이 모든 과정은 대중 앞에서 그녀의 죄악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셨다. 여기서 ‘그’는 여성형 대명사다. 고대 사회에서 침 뱉음을 당한다는 뜻은 수치를 당한다는 뜻이다(신 25:9; 사 50:6-7).

미리암이 진영밖에 가뒤흔치고 칠일 동안 공적인 수치를 당하도록 하셨다면,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한가?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즉각 들어주셨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본문이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으나, 돌아오는 기간이 칠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모세의 중보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칠일 동안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진 밖으로 내치셨다가 칠 일 후에 고치셨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칠 일 이후의 정결례 기간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긴다. 하지만 본문이 모든 것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을 뿐, 이후에 정결례로 칠 일을 더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sup>40</sup> 둘째,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미리암의 피부병을 고쳐주셨으나, 칠 일간의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 진 밖으로 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sup>41</sup> 이 경우 모든 기간이 왜 칠 일에 불과했는지에 대해 적절한 설명이 가능하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셨는지 아닌지에 있으나, 사실상 본문이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기 때문에 확정하기는 어렵다. 본문에서도 미리암이 칠일 후에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칠일 후에 ‘다시 들어오게’ 한다고 말씀한다. 다시 받아들여짐은 단순히 질병에서 고침받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정결례를 마치고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그녀가 다시 진영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백성들은 정상적으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은 본문의 칠일간의 격리가 질병 치료를 위한 격리라기보다는 정결례를 위한 격리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

40. Ashley, *Numbers*, 227-28. 신득일, 『광야의 반란』, 124.

41. 붓드, 『민수기』, 247; 왕대일, 『민수기』, 319-20; Wenham, *Numbers*, 113; Milgrom, *Numbers*, 98. 밀그롬의 경우, 처음부터 미리암의 나병이 흰 눈 같이 하얗게 된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 율법에 따라 정하다고 판단되었고, 굳이 격리되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레 13:13, 17). 문제의 핵심은 아버지로부터 침 뱉음을 당한 딸의 수치와 같이, 미리암의 수치스러움으로 인해 격리된 것이 지 그녀의 부정함 때문에 격리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 4.5. 계속되는 여정(15-16)

미리암이 진영 밖에 격리되어 있던 칠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도 중단되었다. 행진을 그치고 미리암의 회복을 기다렸다는 사실은 미리암이 여전히 이스라엘 공동체에 중요한 인물임을 알게 한다. 하지만 단순히 그녀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적어도 미리암과 아론이 제기했던 모세의 지도력 문제는 공동체 안에서도 일정 부분 이야기가 진행되었을 것이기에 백성들이 행진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음을 본문이 굳이 밝히는 이유는 미리암이 진영 밖에 격리된 칠일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회복의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42</sup>

미리암의 회복 이후(16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머물렀다. 비록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이 성막에서 떠나면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패턴을 유지해 왔지만, 본문은 지도자들의 불평이 오히려 백성들의 행진을 늦추는 역할을 했음을 알린다. 민10:12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머물렀다고 요약적으로 진술했는데, 민12:16은 드디어 바란 광야에 도착한 이야기를 소개함으로 민10:12에서 소개했던 첫 번째 광야 여정을 마무리한다.<sup>43</sup>

### 5. 결론

민수기 11-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바네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일어났던 일들을 담고 있다. 이 광야 이야기가 홍해를 건너

---

42. Milgrom, *Numbers*, 99.

43. Ashley, *Numbers*, 228.

이후 시내산에 이르는 여정과 닮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고, 당신의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하기까지 했다. 너무나 행복하고 희망에 찬 여행의 시작이었으나 인간의 악한 본성은 그 모든 희망을 불평과 심판으로 돌려놓기에 충분했다. 광야의 불평 이야기를 통해 백성들의 연약함과 모세 지도력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공급하시고, 결국에는 종이 아닌 아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이끄실 것임을 소망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실 참되고 완전한 지도자이시다.

# 성경 연구

BIBLICAL STUDIES